

☞ 사직 대문을 등지고 서서..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해설을 맡은 우리문화숨결 시민단체 소속인 궁궐 길라잡이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직단(사적 제 121 호)에 오셨는데요... 혹시 이곳 사직단이 뭐 하는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TV 사극에서 "종묘 사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왕이 '종묘사직이 위태롭구나' 라고 하거나 신하가
왕에게 '종묘 사직을 버리시렵니까?'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종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로 3 가에 위치한 종묘인데요..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
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이곳 사직은 어떤 곳일까요? 사직은 토지신인 사(모일-사, 토지신-사社)와 곡물신인 직(피-직,
곡식-직稷)을 상징하며, 이 사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을 사직단 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와 함께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백성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직에 대한 제사를 지낸 기원은 삼국시대부터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직단은 조선왕조가 수립된 후 태조때(3 년/1394 년 11 월) 공사를 시작하여 태종
때(7 년/1407 년 5 월) 세워진 곳으로 봄/가을/납일에 제사를 지냈고 천재지변이[가뭄,폭우 등] 일어 날 때마다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2000 년 10 월에 사직대제가 국가 무형문화제 제 111 호로 지정된 이후 매년 9 월 넷째주 토요일날 사직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 시대와 근현대 시대를 거치면서 공간의 모습과 기능이 많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 그림은 1783 년(정조 7 년)에 편찬된 '사직서 의궤'에 나오는 '사직서 전도'라는 것인데 사직서의 모습을 그려둔
것입니다. 이중에.. 현재 남아있는곳은... 제가 색으로 칠해둔.. 이곳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파일]**

많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복원중에 있고 발굴조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직단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설명 중 파일자료를 보여드려 좀더 쉽게 이해 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직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과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진파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안향청 일대.. 이곳이 현재 사직단 관리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제례때 사용되는
중요 물품인 향과 축을 보관하고...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러 오면 이곳에 머물면서 왕이 준비를 하던 곳이구요..
밑에 부장직소는 사직의 수문을 담당한 부장들이 숙직하는 곳이었고 악공청은 악공들/일무원들의 준비공간..

그리고 사진 그림 이쪽으로 보시면 재생정 우물 전사청 이런곳 나와있는 이 구역은 제수음식을
마련하던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모안.. 사단/직단 나와있는 이곳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저는 지금
사직대문을 설명 드리고 안에 제사지내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직단 정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3 년 1 월 21 일 보물 제 177 호로 지정]

이 대문은 태조 3 년(1394 년) 처음 지어졌는데요~ 이후 전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세웠습니다..

[♣ 설명안함 - 숙지사향 - 정문 관련 : 옆면 3 칸, 옆면 2 칸, 맞배지붕, 평삼문].

원래부터 이 문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디다. 좀더 앞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1962 년에 사직로 확장과
사직터널 연결을 위해 14M 후방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이때 현판을 새로 달고 문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1973 년..인도 확보 위해 10M 더 도로 안쪽으로 이동 되어 현재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한 관원들과 역원들 중에서 행적이 의심스러운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수복으로 일하던 '주홍'이라는 사람이 평소 자신과 사이가 나빴던 사직서 관원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조선시대 형법에 기준에는 사직이나 종묘 등 대사로 규정되어있는 국가제사에 관련된 물건을 훔친자는 반역자로 처벌하는 법을 적용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홍이라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고 그 가족들도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구요... 당시 사직의 관리를 담당했던 관원들도 장을 맞고 파직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제수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사직에서는 우물을 관리하는 수정관이라는 담당 관리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 수정관은 사직 안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혹시 말라도 사직에 필요한 물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외정.. 즉 예비우물을 사직밖에 마련해 두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정조 때[1793 년/정조 17 년] 우물과 관련된 큰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정조의 친행으로 거행될 기곡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우물이 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우물도 준비를 해두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동분서주하여 물을 공급해서 제사준비를 마치고있는데요

이에 사헌부 감찰이 승정원 승지를 통해 왕에게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조는...

“이는 단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다들 잘했으면 이런일이 생겼겠는가..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조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직서 관원들의 기강 확립과 사직의 철저한 관리/운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고 수정관을 처벌하라고 한 사헌부 감찰관들과 이를 전달한 승정원 승지들도 모두 죄를 물었습니다.

이를 보면 사직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사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왕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직은 왕권에 따라서 그 위상도 같이 했는데요..

1812 년/순조 12 년에 사직서에 도둑이 듭니다. 이 도둑은 사직의 담을 넘어서 땀감을 훔치고 있었는데... 사직을 지키는 군인들이 발견은 했지만 도망친 도둑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한밤중이 아닌 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종~정조대 거치면서 사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했던것과는 다르게 다시 왕권이 약해지고.. 이 사직의 위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약해진 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강점기(1909 년)에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부속 건물들을 철거하고 경역을 크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일제는 사직단을 완전히 헐어 내고 근대적 공원 이라는 허울을 씌워 공간의 위상을 완전 격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변에 도로 확장 및 연장을 하고 이 공원내 산책로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매동 공립 보통학교, 아동 수영장 등을 세웠습니다. **[사진파일]**

[일제강점기 사직단의 변화]

년도	변화과정 내용
1924 년 5 월	공원 주위 도로 확장 및 연장

1924년 11월	공원 내 산책로와 벤치 설치
1926년	개울공사 및 벚꽃과 단풍나무 식수
1931년	도로 필지 분할 시작
1933년	매동공립보통학교 준공
1941년	아동수영장과 정회사무소, 인보관 설치

광복 이후 1960년대에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처음 사직대문에서 설명 드린대로 정문의 위치가 두번이나 바뀌었구요.. 1970년대에는 이 사직단 경내에 도서관과 동사무소, 수영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사직 복원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사직단과 그 주변이 일부 복원되었지만,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파일]**

어찌보면 이는 조선시대 사직과 함께 국가의 상징으로 중시되었던 종묘가 현재까지 원형을 보존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사직은 복원 조사/발굴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복원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 드리기 보다는 이런 공간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고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변하게 될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단 공원의 현황]

년도	변화과정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개원일자	1928년 11월 1일
공원지정	총독부 고시 제 208 호(1940. 3.12) → 서울시 고시 제 301 호(1979. 7. 7)
면적	168,099 m ² (50,846 평)
시설현황	사직단 - 사적 제 121 호(1963. 1. 21 지정) 사직문 - 보물 제 177 호(1963. 1. 21 지정) 단군성전 - 1967년 건립, 1990년 3월 개축, 안향청 1 동(53 m ²), 황학정 1 동(99 m ²) 울곡이이 동상(1969. 7. 8 건립), 신사임당 동상(1970. 10. 14 건립) 어머니 헌정비(1985. 7. 3 건립)
휴양시설	경로당 1 동(163 m ²)
편의시설	매점 1 개소, 화장실 2 동, 음수대 2 개소, 벤치
관리시설	관리사무동 1 동, 가로등 및 공원안내판
기타 조경시설	소나무 외 42 종 (약 12 만주)